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 English

III 3

- Michelle Kim
- Wiehan de Jager
- Ann Nduku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3.0>

Attribution 3.0 International License.

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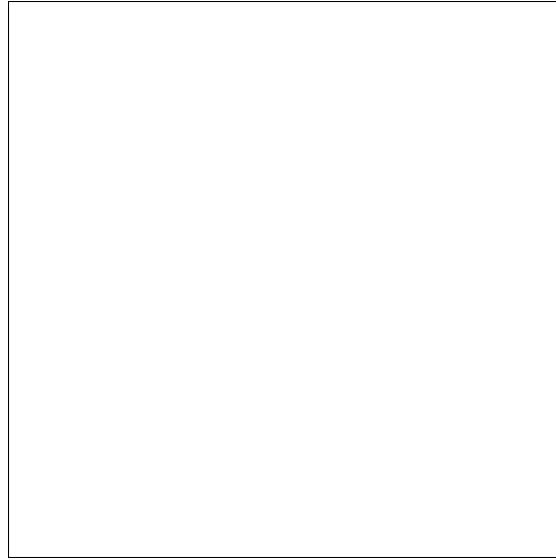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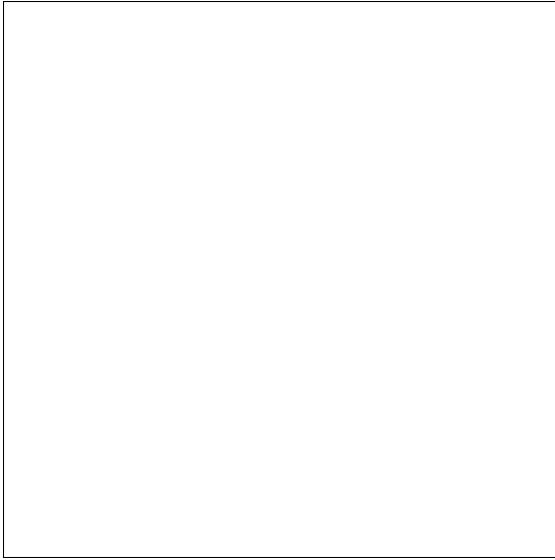
- Michelle Kim (ko)
- Wiehan de Jager
- Ann Nduku

한국어 / Hen and Eagle

globalstorybook.net

Global Storybooks





옛날 옛적에, 닭과 독수리는 친구였어요. 그들은 다른 새들과 평화롭게 살았죠. 아무도 날 수 없었어요.

...

Once upon a time, Hen and Eagle were friends.
They lived in peace with all the other birds. None
of them could fly.

독수리 날개의 그림자가 땅에 나타날때, 닭은 병아리들에게 충고했어요. “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부터 피해.” 그러자 병아리들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는 도망갈 거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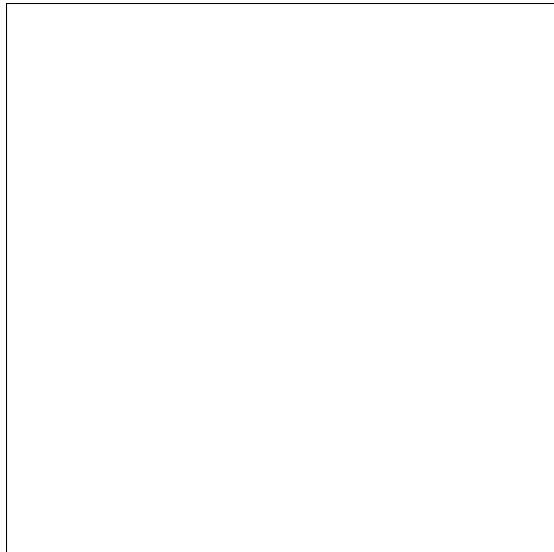
...

As the shadow of Eagle's wing falls on the ground, Hen warns her chicks. “Get out of the bare and dry land.” And they respond: “We are not fools. We will run.”

One day, there was famine in the land. Eagie had to walk very far to find food. She came back very tired. "There must be an easier way to travel!" said Eagi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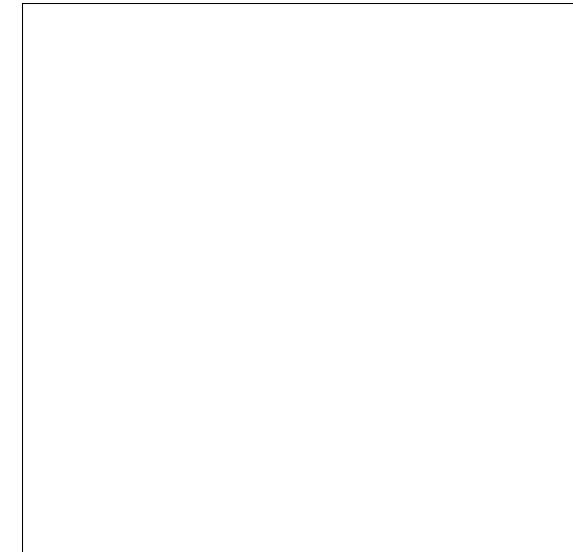
어느 날, 땅에飢餓이 있다. “여기서 걸어다니면서 먹을 걸 찾으려면 힘들겠지.” 에이가 말했다. “나는 다른 길로 갈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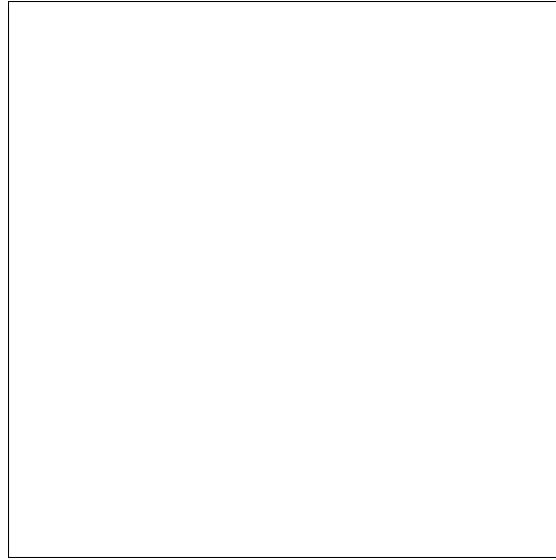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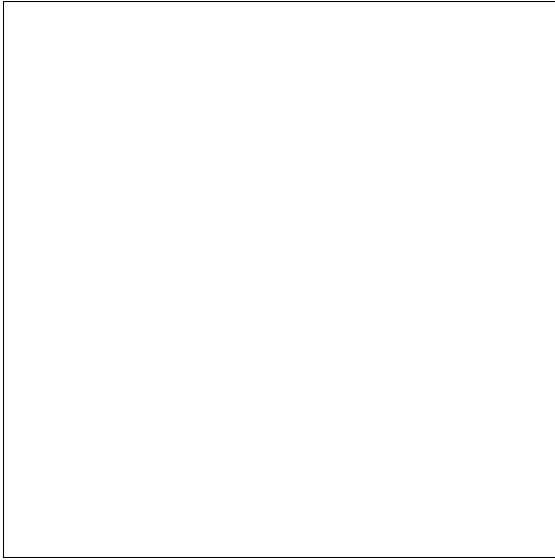


When Eagie came the next day, she found Hen scratching in the sand, but no needle. So Eagie flew down very fast and caught one of the chicks. She carried it away. Forever after that, whenever Eagie appears, she finds Hen scratching in the sand for the needle.

...

그날 다음 날에 에이가 땅에 난 기근을 발견했지만, 바위 위에 새침을 만드는 헌은 아직도 있었다. 그녀는 빠르게 낚아채고 날아온 새를 끌고 갔다. 그 이후로 에이는 새침을 찾기 위해 땅에 새침을 만드는 헌을 만날 때마다 놀라워하면서 그녀를 따라다닌다.





하룻밤을 잘 자고 나서, 닭은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녀는 다른 새들한테서 떨어진 깃털을 줍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 주운 깃털들을 우리 깃털에 붙이자, 그러면 우리가 멀리 다니는게 더 쉬워 질거야.”라고 닭이 말했어요.

...

After a good night's sleep, Hen had a brilliant idea. She began collecting the fallen feathers from all their bird friends. "Let's sew them together on top of our own feathers," she said. "Perhaps that will make it easier to travel."

“나에게 하루만 줘, 그러면 네가 날개를 고치고 다시 음식을 찾으러 날아갈 수 있어.”라고 닭이 독수리에게 부탁했어요. “그럼 하루만이야, 만약 네가 그 바늘을 찾지 못하면, 너의 병아리들 중 한마리를 줘야돼.”라고 독수리가 말했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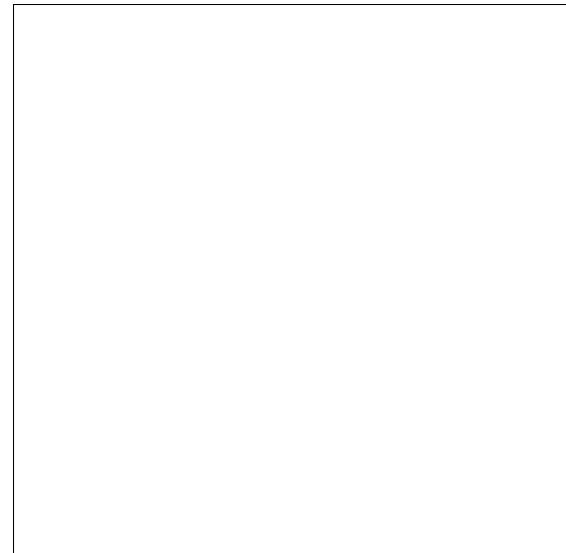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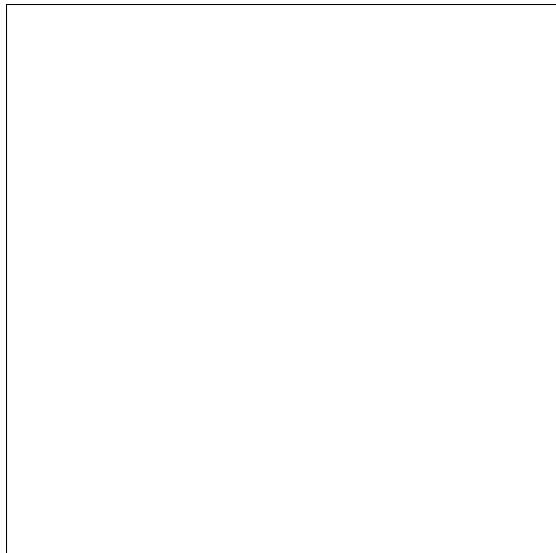
"Just give me a day," Hen begged Eagle. "Then you can fix your wing and fly away to get food again." "Just one more day," said Eagle. "If you can't find the needle, you'll have to give me one of your chicks as pay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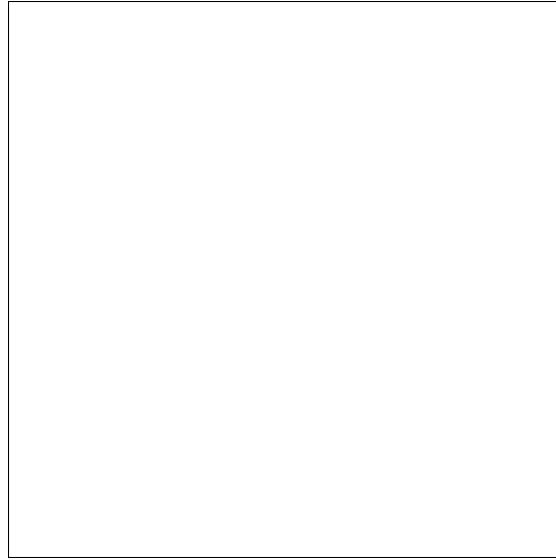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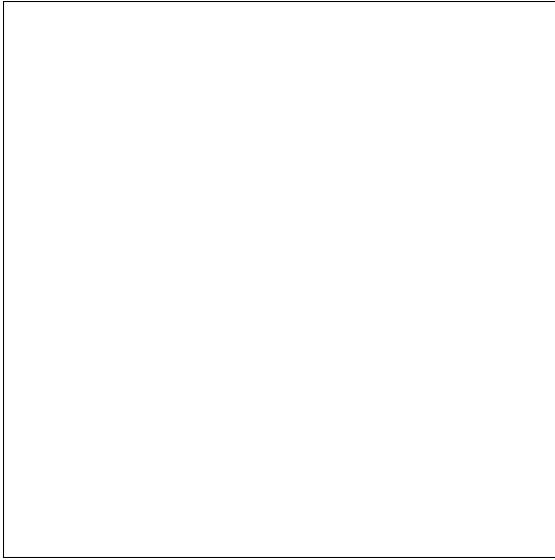
8

Eagle was the only one in the village with a needle, so she started sewing first. She made herself a pair of beautiful wings and flew high above Hen. Hen borrowed the needle but she soon got tired of sewing. She left the needle on the cupboard and went into the kitchen to prepare food for her children.

Later that afternoon, Eagle returned. She asked for the needle to fix some feathers that had loosened on her journey. Then looked on the cupboard. She looked in the kitchen. She looked in the yard. But the needle was nowhere to be found.

한국인은 그들의 삶을 통해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예술, 문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인 혁신이 융합되는 경향이 있다. 예술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서예나 판소리와 같은 전통 예술과 함께 현대적인 미술이나 음악과 같은 현대 예술이 함께 존중되고 있다. 문학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시나 소설과 함께 현대적인 소설이나 드라마 등이 활성화되고 있다. 철학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도학이나 선학과 함께 현대적인 철학이나 철학과 같은 현대적인 철학이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새들은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을 봤어요. 그들
도 날개를 만들려고 닭에게 바늘을 빌려 달라고 했어요.
곧 새들은 하늘 곳곳을 날았어요.

...

But the other birds had seen Eagle flying away.
They asked Hen to lend them the needle to
make wings for themselves too. Soon there
were birds flying all over the sky.

마지막 새가 바늘을 돌려 주려고 했을때 닭은 그곳에 없었
어요. 그래서 병아리들이 바늘을 받아 갖고 놀기 시작 했
어요. 노는 것이 싫증이 났을때, 바늘을 모래에 두고 왔어
요.

...

When the last bird returned the borrowed
needle, Hen was not there. So her children took
the needle and started playing with it. When
they got tired of the game, they left the needle
in the sand.